



작은 힘이라 할지라도 부모님 모시는 마음으로

(사)한국노인복지봉사회 전주시지회(지회장 정인 스님)은 29일 전주르윈호텔에서 암환자 및 독거노인 100여 명을 초청해 위문공연을 펼쳤다. 특히 이날 참석자 모두에게 쌀, 라면, 허리보호대 및 무릎보호대 등 생활필수품 10여 가지를 나눠줬다.

전주시지회는 10년 째 어렵고 힘든 노인분들을 선정해 설날, 추석, 5월 가정의 달을 이용해 1년에 3차례씩 나눔의 잔치를 벌여 오고 있다. 올해는 경제가 어려워 행사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는데, 주위의 요청으로 작은 도움의 손길들이 모여 준비한 행사라서 물품은 적었지만 마음은 더욱 뿌듯했다고 전했다.

이장승 르윈호텔 회장과 정동영 국회의원을 대신해

민혜경 여사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김승수 전주시장을 대신해 김인기 사회과장의 축사가 이어져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정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참석한 모든 노인분들이 흥겨워 하고 잠시나마 시름을 잊고 즐거워 해서 참으로 기쁘다"며, "작은 힘이지만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준비했고, 또한 이번 행사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뒤에서 묵묵히 힘이 돼준 유공자 표창식이 거행됐다. (유)개벽종합건설 이영섭 대표와 완산별 연탄구이 임현 대표가 각각 도시사 표창을 수상했다. /정은성 기자

쌀·라면·무릎보호대 등 생활필수품 10여가지 나눔
이영섭 개벽종합건설 대표 등 유공자 표창식도 거행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